

# “대형 SUV·픽업트럭까지”... 신형 전기차 공세로 위기 돌파

## 글로벌 후 업계, 라인업 대거 공개

현대차,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볼보, ‘EX30’ 최대 333만원 인하 기아, ‘EV4·EV5’ 세단·SUV 정조준 한국GM, ‘이퀴녹스 EV’ 출시 준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설 연휴 이후 신형 전기차를 잇따라 선보인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충전망과 안전성 문제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 다양한 가격과 안전성을 갖춘 신차의 출시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선다.

3월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날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 아이오닉9은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플래그십 모델로, E-GMP 기반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통해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으며 110.3kWh 배터리 탑재로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0km 이상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오닉 9의 판매 가격은 7인승 ▲의



현대차 아이오닉 9.

스클루시브 6715만원 ▲프레스티지 7315만원 ▲캘리그래피 7792만원이며, 6인승 ▲익스클루시브 6903만원 ▲프레스티지 7464만원 ▲캘리그래피 7941만원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적용 시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인승 기본 트림 기준 6000만원 초 중반대부터 아이오닉 9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볼보자동차코리아도 한국 시장의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차세대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 볼보 EX30의 판매하

를 최대 333만원까지 인하하고, 2월 중 본격적인 출고에 나선다.

EX30은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플래그십 모델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프리미엄 전기 SUV다. 특히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출고를 시작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약 10만대(9만8065)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으며, 유럽 시장에서만 7만8032대를 판매하



볼보 EX30.

며 단숨에 프리미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내에는 272마력의 모터 출력과 출발부터 시속 100km까지 불과 5.3초만에 도달 가능한 후륜 기반 싱글 모터의 스텐다드 레인지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실내·외 구성 및 일부 편의사양에 따라 코어(Core)와 울트라(Ultra)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새로운 운전자 경고 시스템을 추가해 볼보의 첨단 안전 기술을 모두 적용한 ‘안전 공간 기술’, 간단한 3D 인터페이스 화면 조작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세대 ‘파크 파일럿 어시스트’ 등을 적용하고도 전 세계 최저가에 국내 고객들이 차세대 프리미엄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식 판매가를 최대 333만원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EX30 코어 트림은 4755만원(기존 4945만원/▼190만원), 울트라 트림은 5183만원(기존 5516만원/▼333만원)으로 책정됐다. 국고 및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4000만원 초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아는 상반기부터 준중형 전기 세단 ‘EV4’,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EV5’ 등 EV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할 전망이다. EV4는 기아의 두 번째 대중형 전기차로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KG모빌리티는 전기 픽업트럭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KG모빌리티는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를 출범하고 첫 전기 픽업 차명을 ‘무쏘EV’로 확정했다. 무쏘EV는 올해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GM은 쉐보레 이퀴녹스 EV를 출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진정되던 원·달러 환율, 트럼프 한 방에 ‘1470원’ 넘겼다

## 美 관세 공세에 원화 가치 급락 美,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추가 관세 국제 외환시장 달러 강세... 원·달러 급등 보호무역 강화에 한국 경제 불안 가중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선언한 데 이어 해당 국가들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시장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2.7원)보다 14.5원 상승한 1467.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달 24일 기록했던 연중 최저치인 1431.3원과 비교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는 35.9원이나 높은 수준으로, 환율은 이날 한 때 1470원을 넘겼다.

이번 환율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기인한 ‘관세 전쟁’이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관측 때문이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는 10%포인트(p)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의회 동의 없이도 유효하며, 그 효력은 오는 4일부터 발생한다.

중국 상무부는 같은 날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상응하는 반격(反制) 조치로 대응해 권익을 수호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 자국민에

게는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또한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3일(현지시간)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국제적인 ‘관세 전쟁’이 가시화하면서, 달러 가치는 빠르게 치솟았다. 통화 대비 달러 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DXY)는 3일 장중 한때 치솟아 110을 목전에 뒀다. 달러인덱스가 110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0월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국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국 가운데 무역 규모가 두 번

째로 많고, 흑자 규모도 560억달러에 달해 주요 무역국 가운데 가장 크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부터 각종 산업체와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고, 일자리를 발생시키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철강,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반도체는 대(對) 미국 수출 품목 가운데 약 2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관세 조치를 비롯한 트럼프의 대대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 가운데 83%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성장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인 1.8%보다 낮은 1.6%로 내다봤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AI·로봇·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강화

## >> 1면 ‘사법리스크 축소 폰...’서 계속

### 대형 투자·M&A로 성장 동력 확보

그간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해외 일정을 소화하는 데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었기 때문.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32조원에 그치면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성장 정체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번 무죄 판결로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뉴삼성’ 비전을 구체화하고 위기극복 방안에 주

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직후 향후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하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M&A와 첨단 R&D사업 발굴 등 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 회장은 미래 먹거리인인 ▲AI ▲로봇 ▲바이오 ▲전장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대표이사 직속 ‘미래로봇추진단’도 만들며 본격적인 로봇 사업 추진을 알렸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

트롤타워 부활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이 회장은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비서실, 미래전략실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해체시켰다. 현재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 회장의 결정에 따라 컨트롤타워의 재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반도체 실적 부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준감위 연구 보고서 발간사에서 “경영 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대왕고래 이어 ‘마귀상어’ 유망구조 발견

## 美액티지오 석유공사 용역보고서

동해 심해에 51억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석유·가스 유망구조가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한국 석유공사가 아직 검증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 평가업체 액티지오(ACT-GE O)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수행된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작년 12월 제출됐다.

액티지오는 지난해 6월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유망구조(대왕고래)에 대한 물리 탐사 분석을 진행했던 업체다. 이

에 석유공사는 작년 12월 1차 탐사시추 작업을 시작해 해저 2km 부근 시료 채취 작업을 마무리하고, 곧 시료 분석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유망구조는 대왕고래보다 많은 14개로,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 구조와 비슷한 유망구조 당 20%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망구조에서는 최소 7000만톤~최대 4억7000만톤의 가스, 최소 1억4000만 배럴~최대 13억3000만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14개 유망구조 중 탐사자 원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 유망구조(마귀상어-Goblin Shark)에는 최대 12억9000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